



[금융] 우리금융지주 다각화 쟁점음 국제자산신탁 인수 04



Life

[산업] SK텔레콤 5G 무제한 요금제 '최고속도'로 승부 05



유령마을이 문화마을로... 30~50년前 서울로 '감성여행'

전면철거 예정이던 돈의문 마을 보전 도시재생으로 옛 흔적 남겨

매일 전시·체험교육 열리는 공간 60~80년대 가정집·오락실·극장등 근현대史 느낄 수 있는 전시관도

서울시가 새로운 방식의 도시재생 방법을 제시했다. 마을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 마을을 허물어 박물관으로 만들어 버렸다. 멸종 위기의 동물을 박제했다고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3일 돈의문 박물관마을에서 현장설명회를 열고 "과거 전면철거 후 새로 짓는 기존의 재개발 방식에 대한 반성으로 공원으로 바뀔 예정이었던 곳을 보전의 도시재생방식을 통해 옛 흔적을 간직한 문화마을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지난 2003년 '돈의문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면 철거 후 근린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었다. 명도집행(강제 퇴거)이 진행되던 2016년 4월 13일 돈의문 뉴타운 지역에서 16년간 일식집을 운영해왔던 고모(68) 씨가 철거 현장에서 분신자살했다. <본지 2018년 8월 1일자 24면 참조>

홍우석 서울시 문화정책과 돈의문 박물관 마을팀장은 "처음 뉴타운 사업에서 마을 주민이 재정착을 못 하고 쫓겨나는 문제가 있어 2015년 계획을 바꿨다"며 "그런데 이미 도시계획을 문화마



서울시가 서울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을 '근현대 100년, 기억의 보관소' 콘셉트의 역사문화시설로 새단장해 본격 운영한다. 사진은 마을 안내소. /연합뉴스

을로 바꿨을 당시에는 이주가 다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서영관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주거하던 분들은 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나갔다. 강제로 내쫓은 건 아니"라며 "기존에 여기서 장사했던 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게 전통찻집, 떡집, 북카페, 복고형 카페 등 편의시설 운영 입찰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마을의 원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계획을 변경, 기존 가옥 63채 중 40채를 유지·보수해 지난해 4월 17일 '돈의문 박물관 마을'의 문을 열었다. 박물관에는 사람 한 명의 목숨과 350억

의 세금이 투입됐지만 아무도 찾지 않아 '유령마을'이 됐다.

서울시는 유령마을로 불리던 돈의문 박물관을 '근현대 100년의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기억의 보관소'로 조성,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30여개 동의 기존 건물을 그대로 두고 '살아있는 박물관 마을'이라는 정체성을 되살릴 수 있도록 1년 내내 전시, 공연, 마켓, 일일 체험교육이 열리는 참여형 공간으로 마을을 재조성했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옛 신문안동네의 역사와 아날로그세대의 감성이 살아있는 마을전시관 16개동 ▲고즈넉



3일 오전 돈의문 박물관 마을을 찾은 사람들이 새롭게 조성된 마을을 둘러보고 있다. /김현정 기자

한 한옥에서 근현대 문화예술을 배워보는 체험교육관 9개동 ▲마을 콘셉트에 맞는 입주작가의 전시와 워크숍이 열리는 마을창작소 9개동으로 구성됐다. 건물 내부는 물론 마당, 골목길, 담벼락 등 9770㎡에 이르는 마을 곳곳이 전시관이자 놀이터다.

홍 팀장은 "돈의문 박물관 마을 운영 업무가 올해 1월 1일자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문화본부로 이관됐다. 체험교육관, 마을창작소 등에 입주한 작가들은 시에서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예전에는 작가 개인을 위한 창작공간이었다면 이제 시민에게 오픈된 공간이자

자신을 내보이는 공간으로 개념이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마을전시관은 작년 4월 개관한 돈의문전시관과 3·1운동 100주년 기념 '독립운동가의 집'을 포함해 1960~80년대 가정집, 오락실, 만화방, 극장, 사진관, 이용원 등 근현대 역사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형 전시관으로 꾸며졌다.

독립운동가의 집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종찰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한다. 생활사 전시관에는 마당과 부뚜막이 있던 부엌, 거실과 자개장 등 옛 가정집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다. 돈의문컴퓨터게임장에서는 스트리트파이터 등 옛 오락실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새문안만화방에서는 만화책 1300여권을 만나볼 수 있다.

마을마당 북쪽에 도시형 한옥이 옹기종기 모인 체험교육관에서는 8가지 주제의 상설 체험교육이 진행된다. 한지 공예, 서예, 1920년대 양장 메이킹업을 비롯해 시대별 스타일링을 체험해보는 화장·복식 프로그램, 6080 통기타 교실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마을창작소는 박물관마을 곳곳에 들어서 있다. 대표적으로 서대문여관에서 생활 밀착형 레트로 콘텐츠 제작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연다. 입장료는 무료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경기도 실제 빈집, 통계청과 10배 차이

도내 실제 빈집수 1만~1만5000호

통계청의 빈집통계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실제 빈집과의 차이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주택 407호를 빈집으로 추정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80호(44.2%)를 최종 빈집으로 판정했다.

이는 2018년 통계청이 공표한 동두천시 빈집 2,838호의 약 1/16에 해당한다. 이런 차이는 1차 조사를 끝낸 평택과 김포시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개 시는 전기사용량이 없는 주택을 빈집으로 추정해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택시는 조사대상 1,207호 가운데 321호(26.6%), 김포시는 305호 가운데 94호(30.8%)를 빈집으로 확정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도는 도내 실제 빈집수를 1만~1만5천호 정도로 추정했다. 이는 3개시 조사결과 한국감정원 추정 빈집수의 20~40% 정도가 실제 빈집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전기·상도 사용량에 근거해 도내 빈집수를 4만4,423호로 추정한 바 있다. 1만~1만5천호는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경기도 전체 빈 집수인 19만 4,981호와 비교하면 5%~8% 수준에 해당한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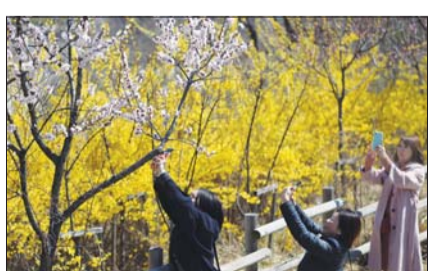
"봄꽃 축제 즐기세요" 주말 대중교통 연장운행

5~11일 여의도 경유 대중교통 운행연장

서울시는 여의도 봄꽃 축제를 시민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5~11일 버스·지하철 운행연장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5일과 6일 여의도 일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27개 노선이 익일 오전 1시 20분까지 연장된다. 여의도 환승센터, 국회의사당역, 순복음교회에서 해당 시간에 막차를 탈 수 있다.

국회의사당을 지나는 지하철 9호선의 경우 봄꽃 축제기간 인파가 몰릴 것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외국인들이 꽃을 보며 봄을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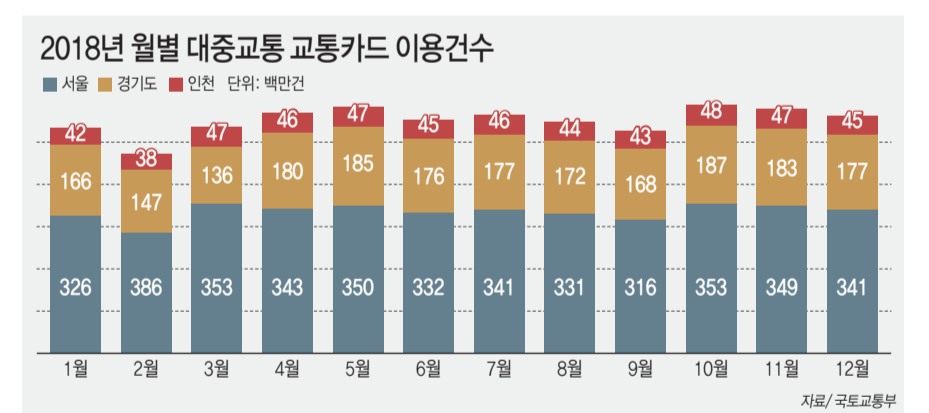
을 대비해 6~7일 오후 2~8시 하루 56회씩 증회 운행한다.

지난해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에는 국

회의사당역(9호선) 기준으로 7일 오후 2~7시에 시민이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당 6000명 이상, 최대 9000명이 이용했다.

한편 시는 4일 정오부터 12일 낮 12시까지 국회 뒤편 여의서로(1.7km)와 서강대교주차장 입구 둔치도로→여의하루IC(1.5km)에서 24시간 차량운행을 통제한다.

버스 막차 운행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픽스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수도권 대중교통 하루 1381만명 이용

대중교통 출근시간 평균 81분 걸려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객이 하루 평균 1381만명에 달하고, 출근 시간은 81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버스는 정릉산장 아파트~개포중학교 구간을 운행하는 143번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수집된 교통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3일 분석·발표했다.

지난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목적지로 이동하는 이용객 수는 1일 평균 1381만명(연간 50억 4000만명)으로 분석됐다. 이는 하루 중 대중교통을 1인당 1.92회 이용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서울은 2.14회, 인천 1.68회, 경기 1.66회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시민들이 대중교통 1회 이용에 지출한 금액은 평균 2104원이다. 지역 간 이동하는 경우 인천~경기 2571원, 서울~인천 2195원, 서울~경기 2001원을 지출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평균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31만명으로, 경기·인천에서 발생한 평균 이용객 수의 24.4%를 차지한다.

반면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가는 평균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26만명으로 서울시 전체 발생 평균 통행량(819만건)의 15.4% 수준이다.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는 평균 1시간 21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신화 기자 csh9101@